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족들로 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백성들을 위하여 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마음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깨닫게 된다.

I. 명칭

본서의 제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 온 것으로 비롯된다.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름을 따라서 책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호와와 던지심은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 의미있고, 여호와와 높이심은 징계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된다.

II. 저자와 기록 연대

1) 저자는 예레미야 이다.

내증과 외증이 모두 지지한다. 내증은 본서 (1:1; 36:1-2) 뿐 아니라 구약 (대하 36:21; 스 1:1; 단 9:2) 등과 신약 (마 2:17-18; 21:13; 막 11:17; 눅 19:46) 등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증으로는 탈무드 외경인 집회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지 본서는 예레미야의 구술에 의하여 동역과 바룩이 대필하고 (36 장) 내용도 첨가하는 (52 장) 과정도 있다. 19 세기의 비평주의적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을 인정했지만 삽입설이나 편집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믿는다.

예레미야의 기록으로부터 그가 불 경건한 므낫세 왕 통치시기(B.C. 696~642)에 태어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있는 아나돗이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1:1, 11:21, 29:27, 32:7-9).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은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는 솔로몬에 의해 아나돗으로 추방당한(왕상 2:26)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모세 시대 계약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그의 초기 시들을 살펴볼 때 그가 거의 율법적인 전통아래서 양육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제사장적 용어가 풍부하며, 그의 신학도 제사장 신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 독신이었으며(16:1-2) 요시아 왕이 13 번째 통치하고 있던 B.C. 626 년경에 소명을 받았다. 사역은 B.C. 586 년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후까지 즉 40 년 이상(렘 3:9) 지속되어 요시아 이후의 네명의 계승자들의 시기, 즉 유다의 마지막 왕의 통치

시기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B.C. 580 년경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데,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다바네스, Tahpanhes"에 거하면서 애굽의 우상숭배를 공격하다가 그의 동족에게 들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한다.

- 2) 기록연대는 요시야 13 년 주전 627 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 년) 이후인 유대인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주전 580 년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52 장은 바룩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방면된 주전 562 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예레미야서의 구성

예레미야서를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시들 (1-20 장),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역사적 사건들 (21-33 장),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사건들 (34-45 장), 열국에 대한 심판 (46-51 장), 그리고 역사적 해설 (52 장)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본적인 구성은 예레미야의 소명 (1 장), 유다를 향한 12 편의 설교 (2-26 장),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26-45 장), 열방을 향한 예언 (46-51 장), 그리고 역사적 부록 (52 장)으로 볼 수 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소명과 격려를 기록하고, 유다를 향한 12 편의 설교에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다.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전설교 (26 장), 유다를 향한 경고 (27-29 장),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30-33 장), 함락전후의 예레미야의 사역 (34-45 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를 통해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증거한다.

IV. 예레미야서의 배경

-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 왕 재위 초기(B. C. 627)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B. C. 586 년 이후까지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했던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100 여년 후 에 사역했으며,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렘 16:1-4). 이것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없는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 우리가 선지자와 똑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복음으로 시대적 상황을 분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수 있으며, 그 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2) 그의 사명은 죽음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므로 굶주림과 죽음의 위기와 소외됨을 경험했다. 참된 선지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도 참된 복음 전도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

3) 그는 반역적인 유다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여호와와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렘 9:1, 13:17). 그는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렘 10:19, 24).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친히 담당하셔서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앗시리아 제국의 멸망 과정에서 다른 제국들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유다 왕국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후 페르시아 발흥까지 전 세계는 바벨론의 손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다에서는 요시아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개혁을 시작했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에서 요시아는 이집트의 느고에게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때로부터 여러 왕들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추종하며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 결국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기를 든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 586년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주변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의 부활 속에서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격동의 시절을 목도 하였다. 예레미야는 애국주의, 친 바벨론계와 친 이집트계의 갈등,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투쟁 등을 보여준다. 이런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V. 예레미야서의 주제들

예레미야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선민의 후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회복의 약속이 나온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한다.

- 1) 전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 2)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다.
- 3)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절대 주관자이시다.
- 4)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 5)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 6)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래된다.
- 7)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 8)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VI. 예레미야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중에 몇가지를 정리해 보면

- 1)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2:13)
- 2)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3:5)
- 3)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는 메시아 나라 오게 하실 그리스도 (23:5-6)
- 4)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3:15)
- 5) 세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31:31-34)

VII.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 2) 핵심 절 : 16:21; 31:33
- 3) 핵심 장 : 31 장

포로시대 전		포로시대	포로시대 후
이스라엘 호세아 아모스	앗수르 요나 나훬	포로중 유대 다니엘 에스겔	예루살렘에있는 유대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유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에돔 오바댜		